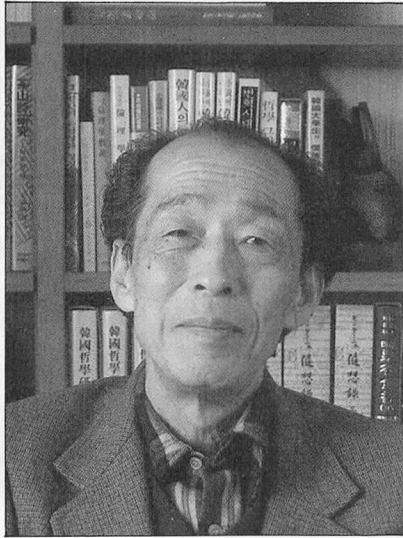


현실에 발 담근 사회철학의 체계정립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펴낸 金泰吉박사



1986년 2월에 있었던 김태길교수의

정년퇴임강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때 김교수는

고별강연의 으레 그런 '회고' 대신

평상시와 다른 '강의'를 했고,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학에 관한 책을 쓰겠다는

한가지 '약속'을 덧붙였다.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은

그 약속의 4년만의 이행이다.

1986년 2월, 오랜 '철학교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진 김태길교수(70,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의 정년퇴임고별강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때 김교수는 고별강연이 갖는 회고조의 관례적 내용 대신 평상시와 다른 '강의'를 했고, 앞으로의 자신의 저술 계획에 대한 한가지 약속을 덧붙였다. 그것은 "나의 행복과 겨레의 번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학에 관한 책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4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이라는 勞作을 우리앞에 내놓았다.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지난 학기까지 일주일에 두시간 정도 대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좀처럼 저술에 몰두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탈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내가 심혈을 쏟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세속적인 일에 초연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그 자신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학문적 업적으로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평소 욕심은 철학적 깊이를 가진 사상을 쉬운 일상적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요구했다고 한다.

「윤리적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는 개인」

200자 원고지 2300매, 본문만도 473쪽에 이르는 이 저서는 제1장 '현실로부터의 출발—삶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4가지 이상적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민주주의의 한국의 청사진을 위한 예비적 고찰'과 이를 위한 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 15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서강대 嚴延植교수는 이 저서에 대해 "김교수 자신이 '변혁시대'라고 표현한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고민해 온 것을 철학적 탐구의 형식 속에 농축시킨 문헌이며 특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차원을 넘어서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독자적 '사회철학'의 체계적 정립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제목에 대해 김교수는, 그간 본문집 필도 어려웠지만 그 내용에 적합한 제목을 정하기 위해 무척 고심했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결국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이라고 했는데, 특히 같은 대학에 있는李明賢교수의 功이 컸다고. 책제목에 있어 그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변혁'이란 中性的인 뜻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철학'은 어떤 특정한 학파의 사회철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특히 '중성적'이라는 개념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제 의도는 전반적인 이 시대의 흐름이 극단적인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변화하려는 대조적이면서도 동시적인 움직임이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혁의 방향은 좌·우 어느 한쪽을 지향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중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서이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에의 필요성에서이건 대학 교양과정에서 철학개론시간은 항상 정원 초과이다. 지금은 다양한 개론서가 많이 나와 있지만 60년대 초반 하더라도 초보자가 읽을만한 변변한 서양철학사 정도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당시 대학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

게 노란 표지의 램프레히트의 「서양철학사」는 '추억의 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김교수가 초창기 우리나라 서양철학계의 주역이었던尹明老, 崔明官교수와 함께 공동번역한 이 책은 지금까지 33판을 거듭하고 있는 서양철학사의 고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김교수의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윤리학적 연구성과이다. 그의 초기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倫理學」에서 그는 국내최초로 윤리적 언어를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동안 그의 관심은 물론 방법론적 변화는 있었지만 "윤리적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는 개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저서에서도 그는 '나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 문제의식의 일차적 有關者로서 개인을 위치시킨다. 그러나 이제 그의 무게중심은 개인과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 사회, 또는 집단으로 옮겨진다. "집단적 행동이 갖는 의미는 그 구성요소인 개별적 행동이 갖는 의미들의 총화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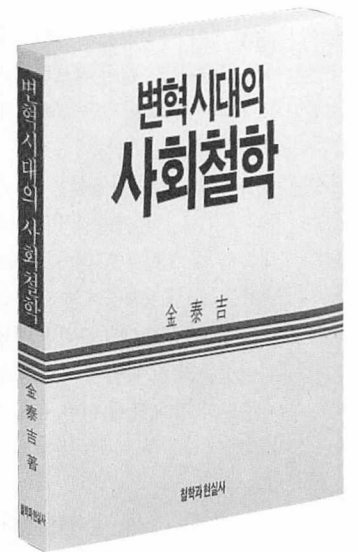
수필 쓰는 일이 유일한 취미

정년 퇴임 후 현재까지 김교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은 철학문화연구소의 일이다. 그곳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매일 일정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활인들을 철학의 울타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크 형태로 그간 3권을 선보였던 「철학과 현실」이 계간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창간호를 낸 것도 이런 김교수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보다 자주, 쉬운 글로 일반인에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담을 늘리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자 철학상담'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의적절한 時評에 신경을 썼지요."

지난 '87년 11월에 문을 연 철학문화연구소는 철학을 통한 사상문화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대학교수 40여명이 모여 만든 것. 예전에 조카와 함께 사두었던 과수원을 처분하여 어렵게 마련한 이 연구소는 앞으로 공간도 더 넓히고 다양한 형태로 일반인들이 철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랑방'으로 가꾸어 갈 것이라고 한다.

올해로 古稀를 맞는 김교수는 일제하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를 다니다 '개인의 신념체계'



를 지킬 수 있는 철학으로 전환했다. 25년동안의 교직생활을 통해 배출한 제자들 중에는 자신과 같은 철학교수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든든한' 아들이 그의 뒤를 밟으면서 미국에서 인신분을 공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김교수의 저술은 저서 13권, 역서 3권, 논문 35편, 그리고 수필집이 13권에 이르고 있다.

"수필을 쓰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어느 글에서도 말했듯이, 칠십평생을 갈등과 방황으로 살아온 셈인데, 아마도 생각을 위주로 하는 '철학'이라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일 겁니다. 수필은 긴장되고 경직된 사고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평소의 제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되고 있죠."

이번 「철학과 현실」 창간호에는 김교수의 자서전적인 「격동하는 시대에 살았다」라는 제목의 연재 첫회분이 실려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일본 유학시절과 학병징집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와 구장을 지냈던 시절,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에피소드를 솔직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어,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그의 말대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했던 꿈의 세월'에서 '평범하고 산문적인 현실의 나날'로 접어들면서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낸 김교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한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으로 약속을 청하고 있었다.

— 정소연 기자